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박선영	소속(학부/과)	토목공학과
파견 학기	2019년 2학기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대학	나이아가라 칼리지 (Niagara college)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해외어학연수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영어라는 언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취업에 영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취업과 별개로 제가 하고픈 일에 일상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어가 반드시 필요했고 개인적으로 필리핀과 캐나다를 고려해보니 캐나다에서 좀 더 깔끔한 발음의 영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캐나다 어학연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의 경험은 많았으나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캐나다 어학연수를 2학기에 가시는 분들은 11월 달부터 많이 추워지니 꼭 따뜻하게 입을 옷들을 많이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이아가라 칼리지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교 수업 이후에 빈 시간이 많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활용할 무언가를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입학관련 서류 또는 비자발급은 학교 측에서 잘 알려 주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경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따로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나이아가라 칼리지 주변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가이며 학교에서 15 ~ 20분 정도 걸어가면 마켓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지만 한국처럼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 안에는 서브웨이를 비롯한 3개 정도의 매점형식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카페는 한 곳이 있고 카페는 아니지만 팀 홀튼이라는 곳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사물함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30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학교를 열지만 학교 안의 매점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께서 홈스테이를 신청하실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홈스테이 집을 학교와 거리가 있는 곳에 배정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칼리지가 있는 웰랜드라는 곳은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도 않고 버스가 자주 다니는 편도 아니라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중반까지는 날씨가 좋고 10월 말부터는 점점 추워집니다. 그리고 11월 중반부터는 정말 추우니 두꺼운 옷을 챙겨가세요. 눈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부츠를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날 좋을 때 집 주변에 있는 공원 산책 꼭 많이 하세요. 추워지면 못 나갑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기본적인 수업은 일기와 말하기, 문법, 쓰기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내용은 학교에 과제를 제출하거나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형식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배웁니다. 저희가 듣는 교육과정은 나이가가라 컬리지에 입학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사용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학문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이 올바른 문법 사용 또는 작문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영어 회화가 목적이자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피킹 수업에서 정석적인 표현과 발음 또는 강세를 말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회화는 반 친구들이 대부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능력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홈스테이는 홈스테이 가족 분들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배정을 받았고, 규칙도 없어서 비교적 편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탁기를 돌릴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 분들도 계셨고 샤워시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에 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지내실 때보다는 생활비가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따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마땅히 없어서 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 이벤트를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식비 활동비 등이 들었고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한 끼에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도 매일 도시락을 챙겨야 했는데 저는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못 챙기고 사 먹었습니다.

홈스테이비용은 아마 한 달에 캐나다 달러로 750이었고 마지막 달에는 14일 정도 지내서 350을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귀국하지 않고 조금 더 머물렀기 때문에 하루에 25달러로 계산해서 추가로 지불하고 좀 더 지냈습니다.(홈스테이 가족과 상의하고 결정)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주말 이벤트 참여,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료였습니다. 나이가가라 컬리지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로 들어가셔서 매주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벤트는 주로 토요일에 진행하며 신청은 수요일 혹은 화요일에 마감합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 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체육관 보다는 집 주변 공원을 더 자주 가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교환학생들도 운동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시간별로 배울 수 있는 운동시간표가 올라옵니다. 참고하셔서 수업을 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학습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수업시간에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의 수업이 많습니다.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반 친구들과 같이 하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어서 노트북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하는 숙제들이 간혹 있고 발표할 때 ppt를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저는 캐나다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같은 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조금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문화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피킹 시간에는 주로 한 주제에 대해 주변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때 저는 문법이 틀리더라도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지다 보니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